



# Issue Briefing

BBC World Service·GlobeScan·EAI 공동  
2013 Global Poll 25개국 조사  
세계인의 한국 평판과 한국인의 17개국 평판  
2013년 5월 23일

정원철\_EAI 여론분석센터 수석연구원

프로젝트 소개  
참여국가  
조사개요

## 1. 세계인의 한국평판

### 1) 2013년도 조사결과

- 한국 국제사회 역할 긍정적이다 35% 부정적이다 31%
- 한국 부정평가 1위는 독일

### 2) 한국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

- 국정평가 비율 상승 1위는 스페인 감소 1위는 일본
- 3년 연속 부정평가 증가 이집트·일본·캐나다

## 2. 한국인의 17개국 평판

### 1) 2013년도 조사결과

- 한국국민 긍정평가 1위는 캐나다 2위는 독일
- 부정평가 1위 북한 3위 일본 4위 중국

### 2) 조사결과 변화

- 급증하는 일본에 대한 부정평가
- 중국에 대한 긍정평가도 급감
- 한국 긍정평가 57%→64%

## 3. 한국인의 미중북일 평판 인식

### 1) 한미중일 상호 평판 인식

- 한국국민 긍정평가 미국 > 중국 > 일본 순
- 미국국민 긍정평가 일본 > 한국 > 중국 순
- 중국국민 긍정평가 한국 > 미국 > 일본 순
- 일본국민 긍정평가 미국 > 한국 > 중국 순

### 2) 한국인의 미중일 평판 요인

- 핵심요인은 외교와 경제
- 외교정책 부정적 영향 중국 77% 일본 96%
- 경제요인 중국은 부정적 일본은 긍정적 영향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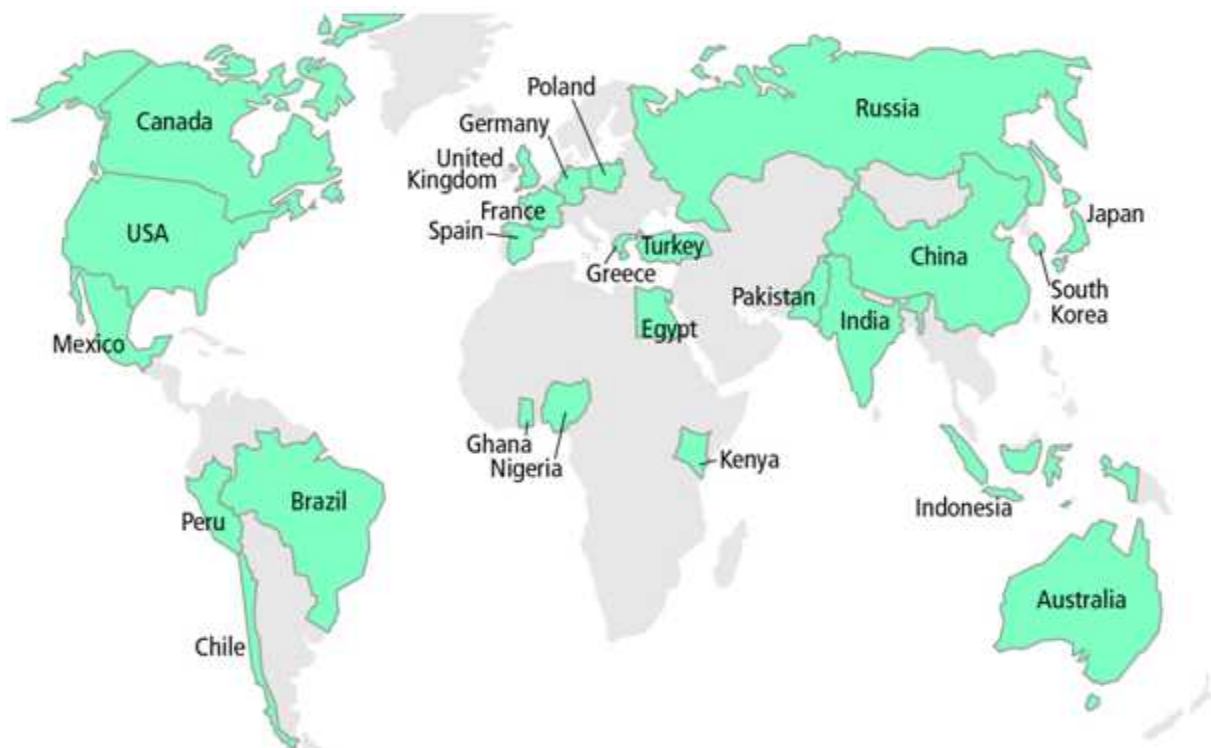
## 2013 Global Poll 25개국 조사 세계인의 눈에 비친 17개국의 국제적 평판

### 프로젝트 소개

Global Poll은 BBC 월드서비스(BBC World Service)가 주관하고 국제조사기관 전문기관인 글로브스캔(GlobeScan)이 조사 참여국들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국제 여론조사이다. EAI는 한국을 대표하여 2005년 조사부터 Global Poll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23일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요인이 되는 16개 국가와 지역연합인 EU까지 총 17개 국가에 대한 국제 평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 EAI의 요청으로 2010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EAI가 조사 기획과 분석을 진행하고 한국리서치가 실사를 담당했다.

### 참여국가

(가나다 순) 가나 · 그리스 · 나이지리아 · 독일 · 러시아 · 멕시코 · 미국 · 브라질 · 스페인 · 영국 · 이집트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칠레 · 캐나다 · 케냐 · 터키 · 파키스탄 · 페루 · 폴란드 · 프랑스 · 한국 · 호주 (이상 총 25개국)<sup>1)</sup>



1) 이 중 G20 회원국은 15개국(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터키 한국 호주)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은 13개국(독일 멕시코 미국 스페인 영국 일본 칠레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터키 한국 호주)이다.



## 25개국 조사개요

- 전체 표본 수 : 26,299명 (국가별 1,000명 내외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물음)
- 조사기간 :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3년 4월 9일 사이
- 조사방법 : 전화조사 또는 면접조사로 진행
- 표집오차 :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pm 3.0\% \sim \pm 4.9\%$
- 조사범위 : (주요도시) 브라질 · 중국 · 이집트 · 인도네시아 · 케냐 · 터키  
(전국) 가나 · 그리스 · 나이지리아 · 독일 · 러시아 · 멕시코 · 미국 · 스페인 · 영국 · 인도 · 일본 · 칠레 · 캐나다 · 파키스탄 · 페루 · 폴란드 · 프랑스 · 한국 · 호주

## 한국 조사개요

- 모 집 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 전체 표본 수 : 1,000명
- 표 본 추 출 : 2013년 1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 · 연령 ·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추출
- 표 집 오 차 :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pm 3.1\%$
- 조 사 방 법 : 유선전화 RDD(임의번호걸기)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 조 사 기 간 : 2013년 3월 18일~21일



# 1. 세계인의 한국평판

## 1) 2013년도 조사결과

- 한국 국제사회 역할 긍정적이다 35% 부정적이다 31%
  - 12위에서 10위로 상승
  - 한국 부정평가 1위는 독일
- 국제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드는 힘(power)에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력(attractiveness)과 평판(reputation)처럼 다른 나라의 자발적 동조를 이끌어내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도 있다. 이 중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요소인 국제적인 평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국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긍정적(mainly positive)인지 아니면 부정적(mainly negative)인지를 25개국의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 조사결과 세계인들이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1%였고 모름/유보라고 답한 비율은 34%였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나 한류열풍의 확산에 따른 기대감과 견주어보면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적 평판의 시계열 변화는 <EAI 여론브리핑> 제133호 참조).
  - 실제 한국의 국제사회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의 국민은 바로 한국 국민이었다. 한국 국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64%였다. 한국을 제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높은 국가의 국민들은 인도네시아와 가나 국민들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응답비율은 58%였고 가나에서의 응답비율은 55%였다.
  - 이 밖에 한국에 대해 전체평균(35%)보다 높게 평가한 국가는 아시아의 호주(45%)·중국(44%), 북미의 미국(47%)·캐나다(38%), 유럽의 스페인(43%)·영국(41%)·프랑스(37%), 남미의 칠레(40%),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48%)이다.
  - 한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즉 긍정평가 비율이 낮은 국가는 독일, 그리스, 일본과 인도와 이집트가 대표적이다. 우선 독일 국민이 답한 한국의 긍정평가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한국 국민은 독일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76%로 캐나다의 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 그리스 국민들 역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18%에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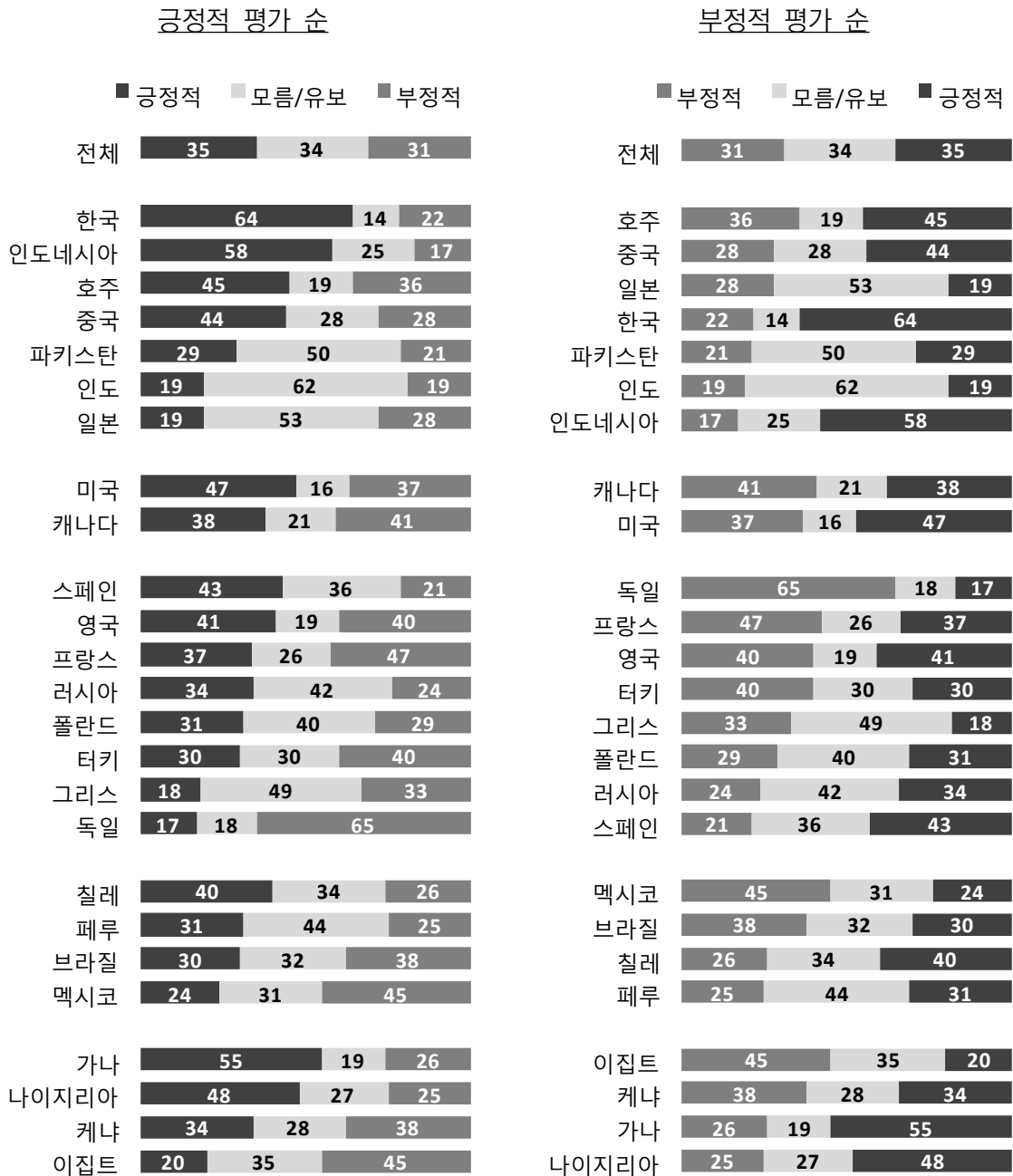
과했으며 지난해부터 양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일본 국민에서의 긍정적인 평가 비율도 19%에 불과했다. 인도 국민들이 한국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 역시 19%에 불과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31%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던 이집트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20%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 반대로 한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가의 국민들은 독일이었다. 독일 국민들이 한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5%에 달했다. 한국 국민은 독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8%였던 것과 비교하면 양국 국민 간 부정평가 비율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sup>2)</sup>
- 부정평가 비율의 절대 값 자체가 높았던 독일을 제외하면 다른 조사 참여국 모두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40%대 이하였다. 상대적으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던 국가를 살펴보면, 프랑스, 멕시코와 이집트, 캐나다, 영국과 터키 등이 있다. 프랑스 국민들 중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7%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 37%보다 10% 포인트(P) 더 높았다. 멕시코 국민들과 이집트 국민들에서의 부정평가 비율은 45%였고 캐나다 국민들에서의 부정평가 비율은 41%였다. 영국과 터키에서 나타난 부정평가 비율은 40%였다.
- 상대적으로 부정평가 비율이 낮게 나타난 국가는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였다. 인도네시아 국민들 중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인도 국민들에서의 응답 비율은 19%였고 파키스탄 국민들과 스페인 국민들에서의 응답비율은 21%였다. 이 밖에 러시아, 페루, 가나 그리고 나이지리아 국민들에서의 응답비율 모두 25% 이하였다.
- 긍정평가 비율이나 부정평가 비율과 더불어 눈여겨 볼 결과는 모름/유보이다. 모름/유보의 비율은 해당 국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지식 및 인지 여부와 더불어 선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국민들은 인도 국민들이었다. 인도 국민들 중 모름/유보라고 답한 비율은 62%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과 파키스탄 국민들 역시 각각 53%와 50%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리스, 페루, 러시아 그리고 폴란드 국민들에서의 응답비율 역시 모두 40%대로 조사되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국가들도 있다는 의미이다.

2) 독일 국민들의 이와 같은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위험국가 4개국(이란,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중국, 일본 그리고 브라질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다. 독일 국민들이 답한 긍정평가 결과, 중국은 13%, 일본은 28% 그리고 브라질은 19%에 그쳤다. 미국에 대해서도 35%의 긍정평가 비율을 나타냈을 뿐이다. 반면 독일 국민들은 같은 유럽 지역의 영국, 프랑스, EU 그리고 자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평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8%였고 EU에 대해서는 59% 그리고 자국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64%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독일 국민들은 같은 유럽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만큼은 국제적 역할 측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세계인들이 보는 한국의 국제적 평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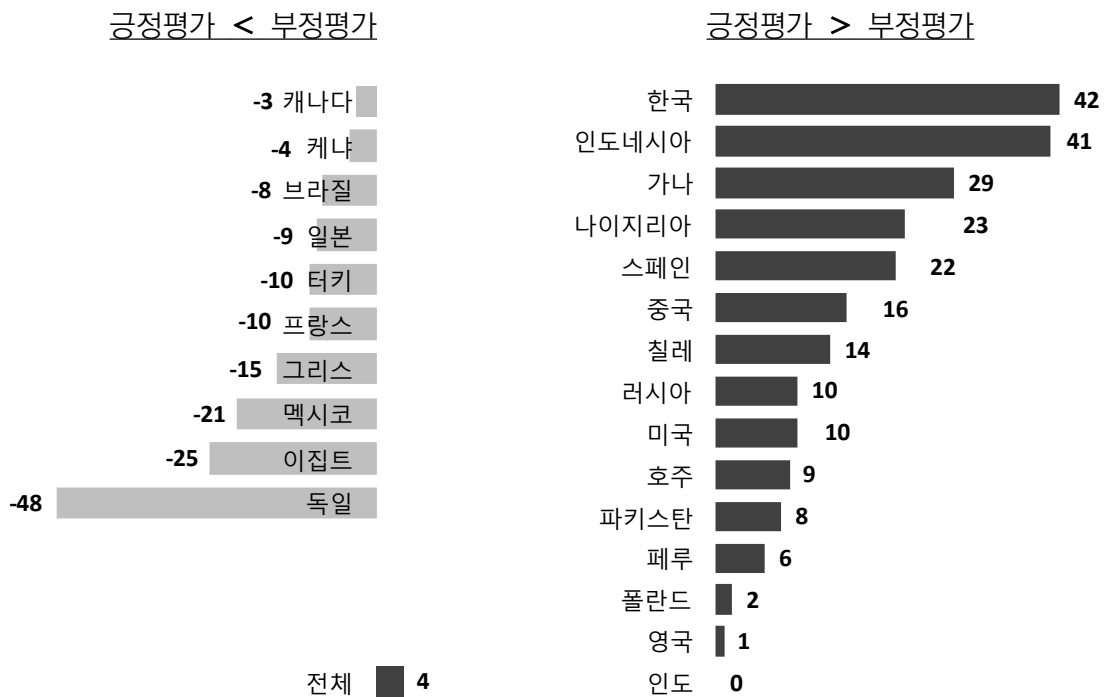
- 이번 조사에 참여한 25개국 국민들이 평가하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비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우선 양의(+)의 값, 즉 긍정평가 비율이 부정평가 비율보다 높은 국가들이 어디인지 살펴보았다. 가장 큰 결과 값을 보인 국가는 42% 포인트(p)로 조사된 한국이었다. 인도네시아가 41% 포인트(p)로 두 번째로 높은 결과 값의 차이를 나타냈다. 가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스페인에서의 결과 값 차이 다른 국가들에서의 결과 값과 비교하여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20%대 포인트(p)를 나타냈다. 이어 중국, 칠레, 러시아 그리고 미국 순이었다. 결과 값의 차이가 가장 적은



국가는 인도와 영국 그리고 폴란드였다. 인도 국민들에서 나타난 결과 값의 차이는 0% 포인트(p)였고 영국 1% 포인트(p) 그리고 폴란드 2% 포인트(p)였다.

- 반대로 음의(-)의 값, 즉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 비율보다 높은 국가들이 어디인지 살펴보았다. 가장 높은 결과 값의 차이를 나타낸 국가는 독일이었다. 독일 국민들이 나타낸 결과 값의 차이는 -48% 포인트(p)였다. 이어 이집트가 -25% 포인트(p)였고 멕시코가 -21% 포인트(p)였다. 그리스, 프랑스 그리고 터키 역시 -10%대 포인트(p)의 결과 값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상회하고 있었다. 일본 역시 부정평가 비율이 9% 포인트(p) 더 높았다.

[그림2]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25개국의 긍부정 평가 차이(%)



## 2) 한국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

- 국정평가 비율 상승 1위는 스페인 감소 1위는 일본
- 3년 연속 부정평가 증가 이집트 · 일본 · 캐나다
- 올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 결과와 부정평가 조사결과를 2012년 및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우선 2012년 긍정평가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국가는 스페





인에서였다. 스페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은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22% 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와 칠레에서도 10% 포인트(p) 이상 긍정평가 비율이 높아졌다. 반대로 긍정평가 비율이 감소한 국가에는 일본과 나이지리아, 캐나다와 이집트가 대표적이다. 일본과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15% 포인트(p)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이집트에서도 각각 14% 포인트(p)와 10% 포인트(p)씩 긍정평가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조사결과와 올해 조사결과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증가폭을 드러낸 국가는 스페인, 가나 그리고 파키스탄 순이었다. 이들 3개국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10% 포인트(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2011년 조사결과와 올해 조사결과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감소폭을 드러낸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었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20% 포인트(p) 감소하였으며 일본 국민들에서는 14% 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긍정평가 조사결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3년 연속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파키스탄과 러시아였다. 반대로 3년 연속 긍정평가 비율이 감소한 국가는 독일, 호주 그리고 브라질이었다.
-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부정평가 비율이 10% 포인트(p) 이상 증가한 국가는 독일·가나·멕시코·이집트·케냐·페루·러시아·일본·미국 등 모두 9개국이 있었다. 이 가운데 독일의 증가폭이 19% 포인트(p)로 가장 컸으며 가나의 증가폭이 18% 포인트(p)로 두 번째로 컸다. 반대로 감소폭이 컸던 국가는 스페인, 한국, 브라질 그리고 영국이다. 스페인 국민들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율은 20% 포인트(p)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1년 조사결과와 올해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부정평가 비율이 10% 포인트(p) 이상 증가한 국가는 이집트와 일본, 가나, 독일 그리고 캐나다였다. 이집트와 일본에서의 증가폭은 17% 포인트(p)였다. 반대로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스페인과 중국이었다. 스페인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5% 포인트(p)나 감소하였고 중국에서의 응답비율 역시 22% 포인트(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부정평가 조사결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이집트, 일본 그리고 캐나다였다. 반대로 3년 연속 부정평가 비율이 감소한 국가에는 스페인이 있었다.





[표1]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판 변화(%)

	긍정적					부정적					
	13년(A)	12년(B)	(A)-(B)	11년(C)	(A)-(C)	13년(A)	12년(B)	(A)-(B)	11년(C)	(A)-(C)	
스페인	43	21	22	29	14	독일	65	46	19	51	14
가나	55	36	19	43	12	가나	26	8	18	11	15
칠레	40	25	15	37	3	멕시코	45	30	15	37	8
인도네시아	58	50	8	51	7	이집트	45	30	15	28	17
파키스탄	29	22	7	19	10	케냐	38	24	14	34	4
러시아	34	27	7	26	8	페루	25	12	13	21	4
한국	64	57	7	84	-20	러시아	24	12	12	23	1
멕시코	24	23	1	24	0	일본	28	16	12	11	17
독일	17	18	-1	19	-2	미국	37	26	11	32	5
영국	41	43	-2	42	-1	캐나다	41	32	9	30	11
호주	45	47	-2	50	-5	프랑스	47	40	7	47	0
페루	31	34	-3	29	2	칠레	26	19	7	26	0
브라질	30	34	-4	39	-9	호주	36	33	3	35	1
인도	19	25	-6	19	0	인도네시아	17	15	2	23	-6
미국	47	53	-6	53	-6	인도	19	18	1	23	-4
중국	44	52	-8	36	8	나이지리아	25	24	1	27	-2
프랑스	37	45	-8	41	-4	중국	28	28	0	50	-22
케냐	34	43	-9	27	7	파키스탄	21	21	0	19	2
이집트	20	30	-10	23	-3	영국	40	42	-2	40	0
캐나다	38	52	-14	46	-8	브라질	38	41	-3	38	0
나이지리아	48	63	-15	42	6	한국	22	34	-12	9	13
일본	19	34	-15	33	-14	스페인	21	41	-20	46	-25
전체평균	35	37	-2	36	-1	전체평균	31	27	4	32	-1

주1)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22개국의 결과만을 정리한 것임

주2) 전체평균 계산에서 한국결과는 제외

## 2. 한국인의 17개국 평판

### 1) 2013년도 조사결과

- 한국국민 긍정평가 1위는 캐나다 2위는 독일
- 부정평가 1위 북한 3위 일본 4위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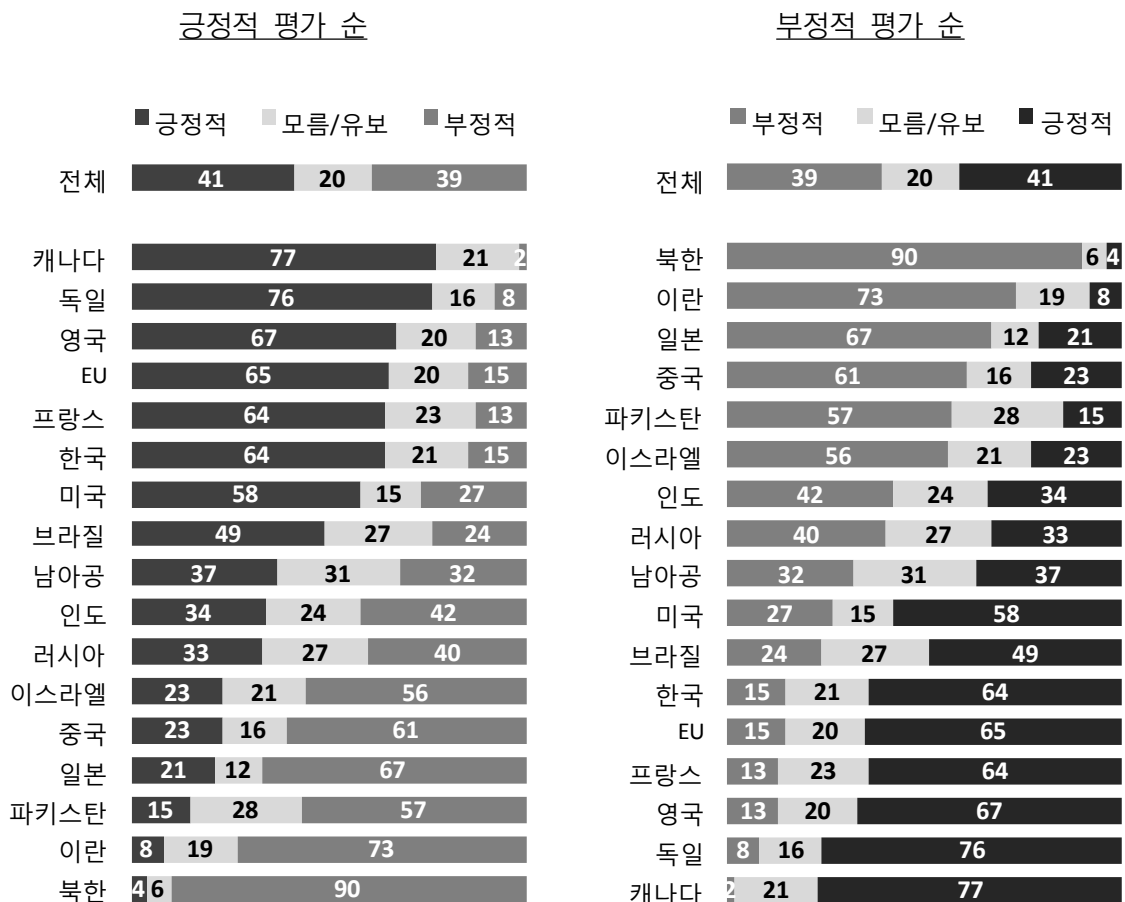
- 한국 국민이 17개 조사대상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긍정평가 결과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국가는 캐나다였다. 캐나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긍정평가 비율은 77%에 달했으며 독일이 76%로 캐나다의 뒤를 이었다. 영국, EU 그리고 프랑스와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당 응답비율은 모두 60%대로 조사되었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국가는 북한이었으며 해당 응답비율은 4%였다. 이란 역시 8%의 응답비율을 나타냄으로써 국제사회 역할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파키스탄, 이란, 중국, 이스라엘 역시 국제사회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파키스탄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15%에 불과했으며 일본은 21% 그리고 중국과 이스라엘이 23%로 조사되었다.

- 부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국가는 북한이었다. 북한의 국제적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90%에 달했다. 이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응답비율은 73%였다. 일본과 중국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본은 67% 그리고 중국은 61%였다. 반대로 부정평가 비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EU와 한국 순이었다. 해당 응답비율은 8~15%였다. 유럽 국가들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우호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3] 한국인의 17개국 평판 조사결과(%)



## 2) 조사결과 변화

- 급증하는 일본에 대한 부정평가
  - 중국에 대한 긍정평가도 급감
  - 한국 긍정평가 57%→64%
- 올해 조사결과는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한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였다. 긍정평가 비율에 있어 한국은 7% 포인트(p), 영국과 캐나다는 5% 포인트(p) 증가하였다. 반대로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였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17% 포인트(p)나 감소하였다. 중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도 10% 포인트(p) 감소하였다. 한국 국민들이 주변국가에 가지고 있는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2011년 1월에 실시된 조사결과에 비교하면,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긍정평가 비율에 있어 이미 긍정평가 비율이 낮을 대로 낮은 북한을 제외하고 모든 대상국에 대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2011년 유럽 발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일본에 대한 감소폭이 47% 포인트(p)에 달했다는 점이다. 2011년 이후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일본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 부정평가 비율에서도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었다. 우선 일본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9% 포인트(p) 증가하였다. 2012년과 비교하여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올해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한국이었다. 한국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그만큼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밖에 캐나다, 이스라엘, 러시아, 프랑스, 영국 그리고 EU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과 2013년 조사결과 중 부정평가 비율의 비교에서 나타난 변화는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2013년 조사결과와 2011년 조사결과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국가는 일본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비율이 47% 포인트(p)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도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 역시 20% 포인트(p)나 증가하였으며 중국, 미국 그리고 EU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8% 포인트(p) 증가하였다. 반대로 부정평가 비율이 감소한 국가는 전체 조사대상국 중 7개국이었으며 그 크기가 가장 큰 국가는 이란과 파키스탄이었다. 이 두 국가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8% 포인트(p)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한국인의 17개국 평가 변화(%)

	긍정적					부정적					
	13년(A)	12년(B)	(A)-(B)	11년(C)	(A)-(C)	13년(A)	12년(B)	(A)-(B)	11년(C)	(A)-(C)	
한국	64	57	7	84	-20	일본	67	58	9	20	47
영국	67	62	5	85	-18	인도	42	42	0	22	20
캐나다	77	72	5	84	-7	북한	90	91	-1	95	-5
이스라엘	23	20	3	31	-8	중국	61	64	-3	53	8
러시아	33	31	2	47	-14	파키스탄	57	61	-4	65	-8
프랑스	64	63	1	82	-18	독일	8	12	-4	10	-2
독일	76	75	1	82	-6	이란	73	79	-6	81	-8
파키스탄	15	14	1	21	-6	브라질	24	30	-6	19	5
브라질	49	49	0	58	-9	남아공	32	39	-7	33	-1
EU	65	67	-2	84	-19	미국	27	34	-7	19	8
이란	8	10	-2	12	-4	EU	15	26	-11	7	8
북한	4	6	-2	3	1	영국	13	25	-12	8	5
남아공	37	40	-3	54	-17	프랑스	13	25	-12	7	6
미국	58	62	-4	74	-16	러시아	40	53	-13	41	-1
인도	34	42	-8	66	-32	이스라엘	56	69	-13	54	2
중국	23	33	-10	38	-15	캐나다	2	17	-15	5	-3
일본	21	38	-17	68	-47	한국	15	34	-19	9	6
전체평균	41	43	-2	56	-15	전체평균	39	45	-6	34	5

### 3. 한국인의 미중북일 평판 인식

#### 1) 한미중일 상호 평판 인식

- 한국국민 긍정평가 미국 > 중국 > 일본 순
- 미국국민 긍정평가 일본 > 한국 > 중국 순
- 중국국민 긍정평가 한국 > 미국 > 일본 순
- 일본국민 긍정평가 미국 > 한국 > 중국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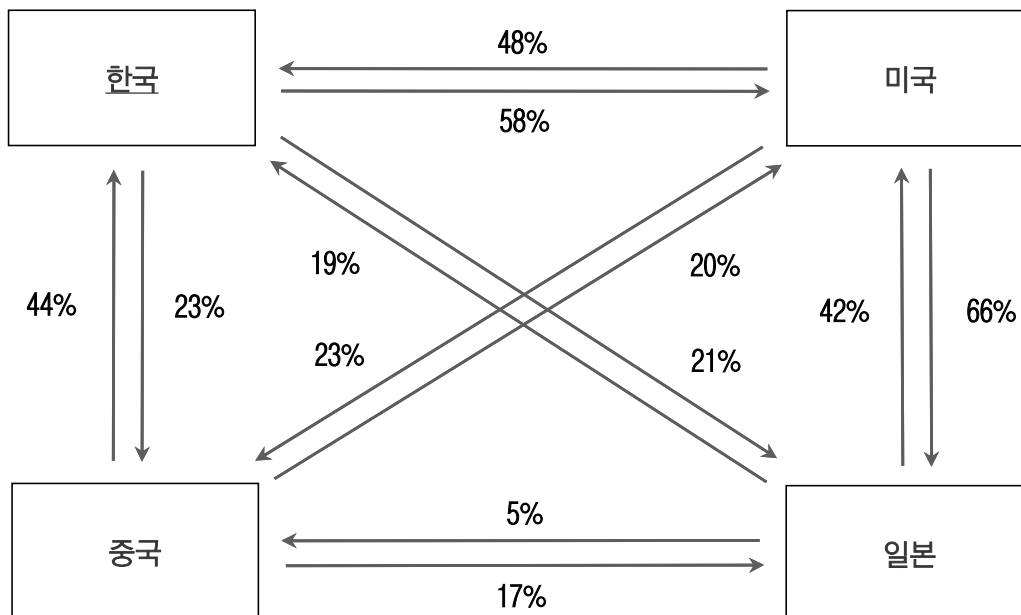
- 2013년 조사에서 한국·미국·중국·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 간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상호 평판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긍정평가 비율만을 기준으로, 우선 한국 국민들은 국제적 역할에 있어 미국에 대해 58%의 긍정평가 비율을 나타냈다. 중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3%였고 일본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1%였다. 미중일에 대한 국제적 역할



평가에 있어 한국 국민들은 미국 > 중국 > 일본 순의 긍정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국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7%였다. 중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3%였고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6%였다. 한중일에 대한 국제적 역할 평가에 있어 미국 국민들은 일본 > 한국 > 중국 순의 긍정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국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4%였다.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였고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7%였다. 한미일 모두에 대해 50% 미만의 긍정평가 비율을 보인 가운데 중국 국민들은 이들 3개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에 있어 한국 > 미국 > 일본 순으로 긍정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본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9%였다.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2%였고 중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한미중 모두에 대해 50% 미만의 긍정평가 비율을 보인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이들 3개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에 있어 미국 > 한국 > 중국 순으로 긍정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한미중일 국민 간 상호 평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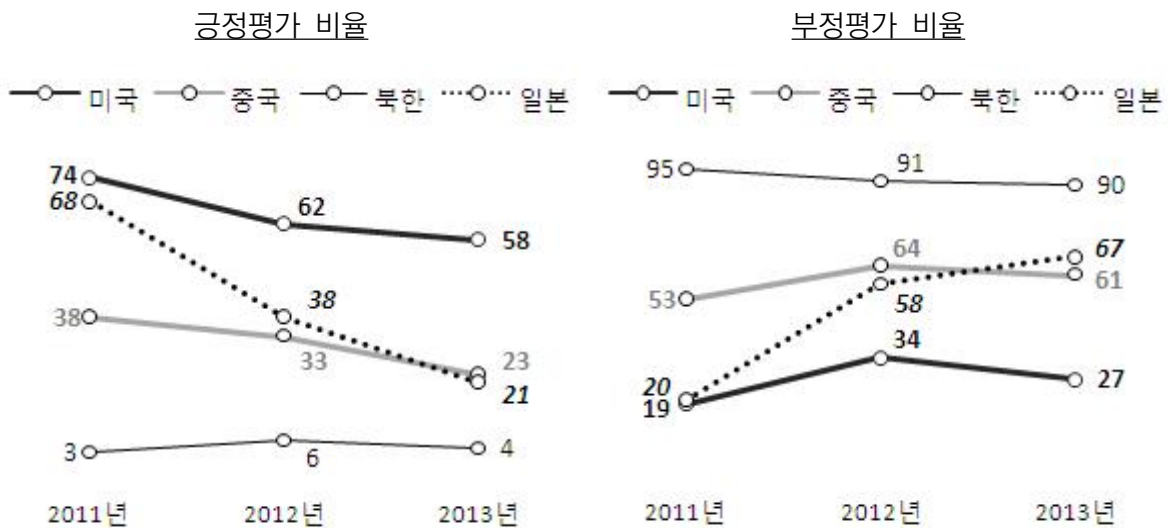
- 2013년 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이 나타난 미중일에 대한 국제적 역할 평가결과는 과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들 3개국 이외에 북한을 추가하여 2011년과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우선 긍정평가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에 조사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국가는 미국이었고



응답비율은 74%였다. 일본은 68%의 긍정평가 비율을 받았고 중국은 38%의 긍정평가 비율을 받았다. 북한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3%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중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뚜렷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긍정평가 비율이 감소했다. 실제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국민 국민들의 긍정평가 비율은 38%로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30% 포인트(p)나 감소하였다. 미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62%로 감소하였고 일본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33%로 감소하였다. 북한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6%였다.

- 부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 조사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국가는 북한이었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 국민의 비율은 95%였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3%였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율은 각각 20%와 1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2년 조사에서 2011년 조사와 비교하여 부정평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증가폭이 컸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비율은 58%로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38% 포인트(p)나 증가하였다. 미국 역시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5% 포인트(p)가 증가한 64%였다. 중국은 11% 포인트(p) 증가한 64%였다.

[그림5] 한국 국민의 미중북일 평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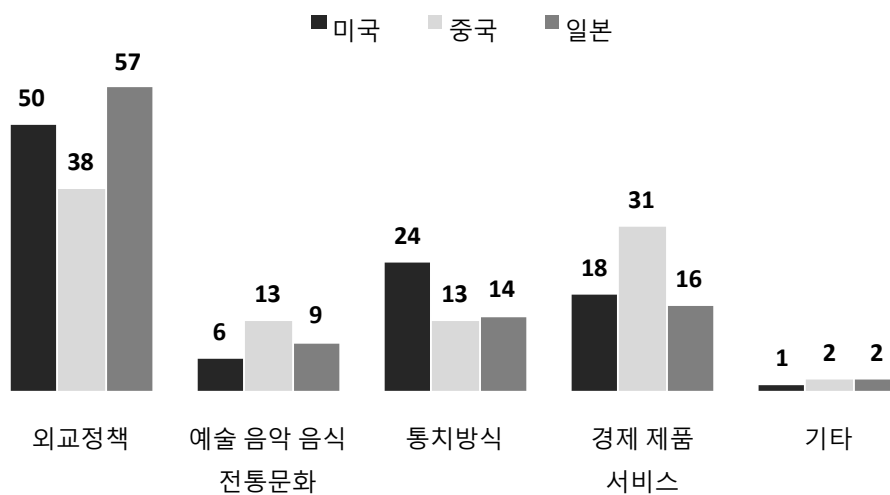
## 2) 한국인의 미중일 평판 요인

- 핵심요인은 외교와 경제
- 외교정책 부정적 영향 중국 77% 일본 96%
- 경제요인 중국은 부정적 일본은 긍정적 영향
- 한국 국민들이 미중일의 국제적 역할 평가에 있어 어떤 요소들을 주로 고려하였는가에 대해 5개의



보기를 가지고 조사하였다. 국제적 평판에 대한 조사인 만큼 외교정책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우선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는데 있어 외교정책을 고려했다고 답한 비율은 50%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38%의 응답비율을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57%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예술·음악·음식·전통문화를 꼽은 비율은 미국의 경우 6%, 중국의 경우 13% 그리고 일본의 경우 9%였다. (해당 국가 정부의 국내) 통치방식을 꼽은 비율은 미국이 24%, 중국이 13% 그리고 일본이 14%였다. 경제·제품·서비스를 꼽은 비율은 미국이 18%, 중국이 31% 그리고 일본이 16%였다.

[그림6] 미중일 평판 요인(%)



주) 모름/무응답(해당 비율 1~2%)은 분석에서 제외

- 이들 요소들이 해당 국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어떠한 방향성을 나타내는지, 즉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 우선 외교정책의 경우 미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비율이 96%에 달했다. 예술·음악·음식·전통문화에서는 3개국 모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에서의 응답비율이 88%로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더욱 높았다. 통치방식에 있어서는 미국(71%)을 제외한 중국(95%)과 일본(74%)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경제·제품·서비스는 미국(71%)과 일본(85%)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높았지만 반대로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율(85%)이 높았다.



[표3] 미중일 평판 요인의 방향(%)

	미국		중국		일본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외교정책	60	40	23	77	4	96
예술 음악 음식 전통문화	88	12	54	46	51	49
통치방식	71	29	5	95	26	74
경제 제품 서비스	71	29	31	69	85	16
기타	40	60	33	67	10	90

주) 모름/무응답(해당 비율 1~2%)은 분석에서 제외



## 25개국 조사진행

국가명	표본크기	조사시간	대상	조사방법	조사지역
호주	803	2013. 2. 25 ~ 3. 15	18+	전화조사	전국
브라질	800	2013. 1. 23 ~ 2. 15	18+	대면조사	도시지역 <sup>1</sup>
캐나다	1003	2013. 2. 23 ~ 4. 1	18+	전화조사	전국
칠레	1200	2012. 12. 10 ~ 2013. 1. 2	18+	대면조사	전국
중국	1000	2013. 2. 18 ~ 3. 24	18+	전화조사	도시지역 <sup>2</sup>
이집트	1000	2013. 3. 10 ~ 4. 9	18+	대면조사	도시지역 <sup>3</sup>
프랑스	1003	2013. 2. 12 ~ 22	15+	전화조사	전국
독일	1002	2013. 2. 14 ~ 3. 8	16+	전화조사	전국
가나	1001	2013. 1. 9 ~ 24	18+	대면조사	전국
그리스	1000	2013. 3. 6 ~ 11	16+	전화조사	전국
인도	1207	2013. 3. 25 ~ 4. 1	18+	대면조사	전국
인도네시아	1000	2013. 2. 4 ~ 21	18+	대면조사	도시지역 <sup>4</sup>
일본	1560	2012. 12. 22 ~ 23	20+	대면조사	전국
케냐	1000	2013. 3. 20 ~ 4. 4	18+	대면조사	도시지역 <sup>5</sup>
멕시코	800	2013. 2. 16 ~ 20	18+	대면조사	전국
나이지리아	800	2013. 3. 16 ~ 23	18+	대면조사	전국
파키스탄	2200	2013. 2. 15 ~ 28	18+	대면조사	전국
페루	1020	2013. 2. 16 ~ 20	18+	대면조사	전국
폴란드	1060	2013. 3. 7 ~ 13	18+	대면조사	전국
러시아	1009	2013. 1. 29 ~ 2. 20	18+	대면조사	전국
한국	1000	2013. 3. 18 ~ 21	19+	전화조사	전국
스페인	811	2013. 3. 5 ~ 14	18+	전화조사	전국
터키	1002	2013. 1. 28 ~ 2. 11	15+	대면조사	도시지역 <sup>6</sup>
영국	1000	2013. 1. 31 ~ 3. 9	18+	전화조사	전국
미국	1018	2013. 2. 23 ~ 3. 17	18+	전화조사	전국

1. 브라질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23%를 대표하는 Belo Horizonte, Brasília, Curitiba, Goiânia, Porto Alegre, Recife, Rio de Janeiro, Salvador, São Paulo에서 실시했다.

2. 중국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45%를 대표하는 Beijing, Beiliu, Chengdu, Dujiangyan, Fenyang, Fuyang, Guangzhou, Hangzhou, Manzhouli, Quanzhou, Qujing, Shanghai, Shenyang, Shuangcheng, Wuhan, Xi'an, Xining, and Zhengzhou에서 실시했다.

3. 이집트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24%를 대표하는 Alexandria, Cairo, Giza, and Shubra El-Kheima에서 실시했다.

4. 인도네시아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27%를 대표하는 Bandung, Jakarta, Makassar, Medan, and Surabaya에서 실시했다.

5. 케냐 조사는 거주자의 수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성인인구 37%를 대표한다.

6. 터키 조사는 전국의 성인인구 55%를 대표하는 Istanbul, Bursa, İzmir, Adana, Antalya, Samsun, Zonguldak, Ankara, Konya, Diyarbakır, and Erzurum에서 실시했다.

## 영문 질문지



**I would now like to ask your impressions of some specific countries.**

**M1A.** Please tell me if you think each of the following countries is having a mainly positive or mainly negative influence in the world. **ROTATE**

at) China

01 - Mainly positive

02 - Mainly negative

VOLUNTEERED (DO NOT READ)

03 - Depends

04 - Neither, neutral

99 - DK/NA

bt) France

ct) The United States

dt) The European Union

et) Japan

ft) Israel

gt) North Korea

ht) Canada

**M1B.** Please tell me if you think each of the following countries is having a mainly positive or mainly negative influence in the world. **ROTATE**

at) The United Kingdom

01 - Mainly positive

02 - Mainly negative

VOLUNTEERED (DO NOT READ)

03 - Depends

04 - Neither, neutral

99 - DK/NA

bt) Russia

ct) India

dt) Iran

et) Brazil

ft) Pakistan

gt) Germany

ht) South Africa

it) South Korea



## 국문 질문지

몇몇 국가에 대한 인상을 여쭙겠습니다.

(⇒ 표본의 50%인 A그룹에게만 조사하십시오.)

**M1t.** 다음 각각의 국가가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대체로 긍정적인지 혹은 대체로 부정적인 말씀해 주십시오.

(☞ Rotation)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원지 마시오)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중간이다 (☞원지 마시오)	모름/무응답 (☞원지 마시오)
at	중국	1	2	3	4	99
bt	프랑스	1	2	3	4	99
ct	미국	1	2	3	4	99
dt	유럽연합(EU)	1	2	3	4	99
et	일본	1	2	3	4	99
ft	이스라엘	1	2	3	4	99
gt	북한	1	2	3	4	99
ht	캐나다	1	2	3	4	99

(⇒ 표본의 50%인 B그룹에게만 조사하십시오.)

**M2t.** 다음 각각의 국가가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대체로 긍정적인지 혹은 대체로 부정적인 말씀해 주십시오.

(☞ Rotation)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원지 마시오)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중간이다 (☞원지 마시오)	모름/무응답 (☞원지 마시오)
at	영국	1	2	3	4	99
bt	러시아	1	2	3	4	99
ct	인도	1	2	3	4	99
dt	이란	1	2	3	4	99
et	브라질	1	2	3	4	99
ft	파키스탄	1	2	3	4	99
gt	독일	1	2	3	4	99
ht	남아프리카공화국	1	2	3	4	99
it	한국	1	2	3	4	99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mailto: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수석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mailto:cwc@eai.or.kr))

ISBN 978-89-92395-44-1 95300

